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

2026년부터 실행 모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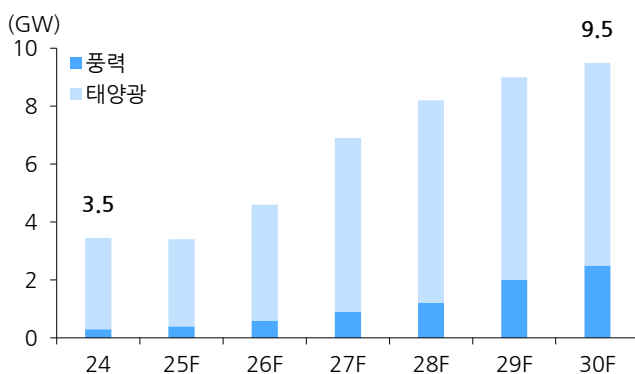
국내 그린산업

2026년부터 국내 에너지 전환은 실행 모드로 진입. 재생에너지, 전기차, BESS의 설치 확대가 구조적으로 시작될 것. 이를 위한 각종 세부 정책도 확정되면서 관련 업체들에게 국내 시장의 중요도 높아질 것

ESG/그린산업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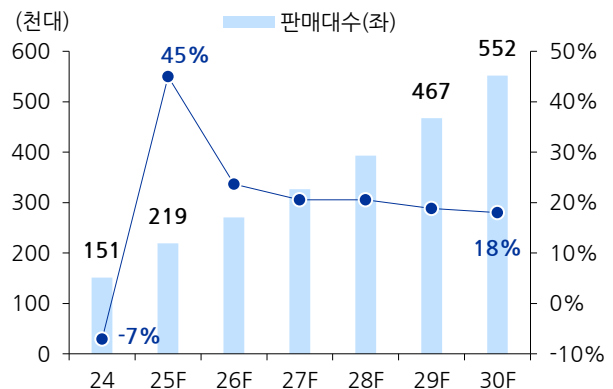
- 2026년 국내 에너지 정책의 화두는 1) 재생에너지 2) 전기차 등에 대한 확대 정책의 실행 시스템 구축 3) 중장기 정책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4) 전력 시장 구조 재편 시작 등
- 1) 재생에너지의 국내 연간 설치량을 기존의 3~4GW 수준에서 현정부 임기말까지 10GW 수준까지 확대하려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 정부가 중심이 된 입찰제도, 계획입찰제도로 전환되고, 최종 실행자인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예상됨
- 2) 교통부문의 탈탄소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도 강해지고 있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상향되었고, 판매를 2030년까지 신차의 4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 연간 전기차 판매가 현재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
- 3)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 목표량 100GW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11차에 담긴 원전 계획이 유지되느냐와 2040년까지의 전력원별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중점 사항.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에 두고 원전을 어떤 수준으로 균형잡느냐와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
- 4) 전력 시장 구조 개편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임. 다만 중앙집중식인 현재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에는 현 정부의 임기로는 불가능. 당장 필요한 발전공기업의 합병 논의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 석탄발전 조기 폐쇄 정책으로 사업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 풍력, 태양광 개발업체와 기자제업체들, 전기차와 BESS 확대에 따른 배터리업체들에게 대한민국 시장이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는 원년이 될 것

국내 풍력, 태양광 연간 설치량 예상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전기차 판매량 예상



자료: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8%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2%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12.31 기준)